

6. Screeing mammography 검사를 한 유방영상에서 정상소견은 6,980명(89.9%), 이상소견은 784명(10.1%) 이었다. 이상소견에는 양성 유방석회화(242명)가 가장 많았고, 양성 유방종괴(103명), 성유낭종성 변화(89명), 암증성 림프절 석회화(68명), dense breast(68명), 섬유선종(64명) 등이 많았다.

<17> 조사야 확인용 film을 이용한 자궁경부암 환자의 조사야 정확성 연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치료방사선과
정희영* · 권영호 · 정덕양 · 황웅구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
김 유 현

[목적]

1994년 6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본원에서 치료한 자궁 경부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야 확인용 필름을 이용하여 치료 조사야의 정확성을 분석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실험방법]

자궁 경부암 환자 30명을 각각 5명씩 6군으로 구분하여, 환자의 전체 치료기간 동안 조사야 확인용 필름을 촬영하여 조준촬영 필름 및 최초 조사야 확인 필름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각군의 최대 좌우이동 오차는 각각 6, 5, 10, 10, 10, 5 mm, 최대상하이동 오차는 6, 5, 11, 8, 9, 11 mm였다.

[결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환자에 있어서 환자 고정용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비만 체격의 환자에 있어서는 복와위 자세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 하였다. 또한 오차의 크기를 인지하고 최초 치료계획시 조사야를 오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18> 방사선사의 정원 선정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 춘해병원 방사선과
박 명 제

부산 시내 대학 부속 병원 4개, 종합병원 14개, 병원 12개, 의원 19개의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322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사의 정원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자는 총 265명(회수율 82.3%)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곳은 일반 촬영실이 24.5%로 가장 많았고 의료영상장치 대수는 현상기가 81대(17.3%)로 가장 많았으며 촬영실별 1일 환자 수는 일반촬영실이(53.8%) 가장 많았다.
2. 촬영건수를 정할 때 skull series를 1건으로 하는 경우가 49.0%로 나타났고 4건으로 하는 경우도 46.9%로 나타났다.
3. 방사선과 전문의 0.2명당 방사선사 1명으로 나타났고 1일 평균입원환자 24.7명당, 외래 환자 54.0명당 방사선사 1명으로 나타났다.
4. 의료영상장치 1대당 방사선사 0.7명으로 나타났으며 촬영실별로는 혈관촬영기가 1.7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MRI실(1.5명), 다음으로 CT실(1.4명)로 나타났다.
5. 정원제 실시에 관하여 조사 대상자의 86.0%가 찬성하였고 기대되는 효과는 방사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 이다가 57.0%로 가장 높았다.
6. 정원제를 할 경우 병원규모 및 촬영실에 따른 차이를 두어야 한다가 64.9%, 81.1%로 가장 많았고 촬영실의 정원제는 일반촬영실이 대학병원(55.6%), 종합병원(58.8%) 다같이 2명 근무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CT실은 대학병원(42.3%), 종합병원(60.0%) 다같이 3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